



KOSDAQ | 에너지

우진엔텍 (457550)

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 전문기업

체크포인트

- 2013년 설립된 원자력 및 화력 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 전문기업으로, 2024년 1월 코스닥 상장. 현재 원자력 발전소 4개, 화력 발전소 5개의 계측제어설비 정비 서비스를 제공. 2024년 사업부문별 매출비중은 원자력 64.6%, 화력 34.8%, 제품 0.6% 차지
- 투자포인트: 1) 원전 해체 시장의 기회, 2) 새울2발전소 가동, 3) 원전 운영의 핵심 부품 국산화
- 2024년 매출액 440억 원, 영업이익 53억 원 기록. 2025년 매출액 448억 원(yoy 1.9%), 영업이익 62억 원(yoy 16.6%) 전망. 현주가는 2025년 추정 BPS 대비 PBR 3.1배로 코스닥(2.2배) 및 유ти리티 업종 평균(0.4배), 발전정비 사업을 영위하는 동종 업종 평균(0.6배) 대비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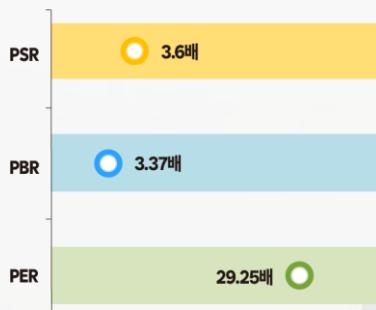
주가 및 주요이벤트



재무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우진엔텍 (457550)

KOSDAQ

에너지

이희경 연구원 hk.lee@kirs.or.kr

김선호 연구위원 shkim@kirs.or.kr

원전 해체 시장의 기회

국내에서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가 영구 정지 후 해체를 준비중으로, 가동이 만료된 원전이 해체됨에 따라 국내 원전 해체 시장 개화 예상. 동사는 2023년 정부 유관기관에서 주관하는 두 건의 원전 해체 기술개발 국책 과제 수행기업으로 선정

원전 운영의 핵심 부품 국산화

국내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를 공급하던 해외 기업의 폐업 및 제품 생산 중단으로 국내 업체로 부품 교체 수요 집중. 동사는 보조급수펌프 터빈 속도제어 판넬, 광범위 지역감시용 방사선 검출기, 소내 방사선 감시계통 MI 케이블 어셈블리, ENFMS 신호처리함 등 원전 운영 핵심 부품 개발 및 생산

현 주가는 PBR 3.1배로 코스닥 및 업종대비 고평가 수준

현재 주가는 원전 산업에 대한 국내외 정책 기조와 해외 원전 수주 기대감이 반영. 원자력 발전소 해체 시장 진출을 통한 신규 매출 창출, 계측제어 관련 국산화 제품 개발, SMR등 차세대 원전 사업 진출 등 구체적인 사업 성과와 실적 개선 동반 기대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억원)	312	374	407	440	448
YoY(%)	18.6	19.6	8.9	8.1	1.9
영업이익(억원)	50	57	59	53	62
OP 마진(%)	15.8	15.2	14.5	12.1	13.8
지배주주순이익(억원)	45	48	53	54	64
EPS(원)	784	835	794	590	694
YoY(%)	흑전	6.5	-50	-25.7	17.6
PER(배)	0.0	0.0	0.0	23.9	24.9
PSR(배)	0.0	0.0	0.0	2.9	3.6
EV/EBITDA(배)	N/A	N/A	N/A	15.7	17.5
PBR(배)	0.0	0.0	0.0	2.8	3.1
ROE(%)	24.8	21.5	18.3	13.4	12.9
배당수익률(%)	N/A	N/A	N/A	1.4	1.2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5/9)	17,260원
52주 최고가	47,550원
52주 최저가	13,280원
KOSDAQ (5/9)	722.52p
자본금	36억원
시가총액	1,600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9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17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32억원
외국인지분율	20.5%
주요주주	우진
	40.99%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26.7	-256	-42.7
상대주가	12.8	-235	-30.9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이자보상배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IC', 활동성지표는 '재고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벨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벨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벨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1 회사연혁

2013년 설립 및 2024년

코스닥에 상장한 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 전문기업

우진엔텍은 2013년 1월 설립되었으며, 2024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원자력 및 화력 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 전문기업이다. 동사는 2013년 3월 세종기업으로부터 원자력 및 화력 발전소의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 사업부문을 인수하였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원전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Q-CLASS] 유자격 공급업체로 등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계측제어 분야 정비용역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동사가 현재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원자력 발전소는 4개(한빛2, 고리2, 한울3, 새울2)이다. 동사는 2014년 고리 제2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을 수주하면서 계측제어설비 경상정비 분야에 진입하였다. 동사는 2015년 한빛 제2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2021년 한울 제3발전소의 계측제어설비 정비 공사용역을 수주 받았다. 또한, 새울 제2발전소(새울3,4호기, 舊 신고리5,6호기)의 계측제어설비 분야 시운전 공사에도 참여하였으며, 현재까지 계약을 연장하여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에는 신한울 제1원자력 발전소의 정비용역 서비스를 수행하였으며, 2024년 5월 계약이 종결되었다.

동사가 현재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력 발전소는 5개(신보령, 영흥1, 영흥2, 태안2, 강릉안인)이다. 동사는 2015년 신보령 화력발전소 1,2호기 비핵심 계측제어설비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6년 한국남동발전으로부터 영흥 화력 발전소 1~6호기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태안 화력발전소 5~8호기 계측제어설비 정비 공사용역을 수주 받았다. 2021년부터는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의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도 수행하고 있다.

정비용역 이외에도 동사는 2021년 고리1발전소에 방사선 영상화 장비(G-CAM), 2022년 한빛1발전소에 보조급수펌프터빈 속도제어패널 2식을 납품하는 등 원자력 발전소에 필수적인 제품과 장비들을 국산화하여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현재까지 쌓아온 발전소 정비 사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시장 진출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동사는 2023년 6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지원하는 '원전 해체현장 방사능 측정시스템 개발 및 실증' 과제에 핵심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되어 참여하고 있으며,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원자력 안전 및 해체 분야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ATC+, Advanced Technology Center Plus)'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 유관기관에서 주관하는 두 건의 원전해체 기술개발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연혁

2013~2015 계측제어분야 성공적 시장 진입	2016~2020 지속적 수주 확대 및 기술 고도화	2021~ 원전 해체 시장 No.1 기업 도약
<p>2013 우진엔텍 설립 세종기업의 발전정비 사업 및 R&D 분야 인수</p> <p>2014 고리 제2원자력 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 수주</p> <p>2015 한빛 제2원자력 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 수주 신보령 발전소 1·2호기 비핵심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 수주</p>	<p>2016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계측제어분야 제조 및 난품 시작 영흥 발전소 1~6호기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 수주</p> <p>2017 태안 발전소 5~6호기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 수주</p> <p>2018 원자력발전소 주요 계통 정비용역 시작 정밀점검 및 분석시스템 등 다수 제품 공급</p> <p>2020 중소기업 협력 연구개발과제 원료 및 상용화 성공 (한국수력원자력)</p>	<p>2021 현을 제2원자력 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 수주 서울 제1원자력 발전소 계측제어설비 분야 시운전 공사 수주 강릉 안전보증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 수주</p> <p>2022 신한울 제1원자력 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 수주</p> <p>2023 원전해체 현장 방사능 측정시스템 개발 및 실증 과제 진행 원자력 안전 및 해체분야 우수 기업 연구소 육성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p> <p>2024 한국증권거래소(KOSDAQ 시장) 상장 ENMS 신호처리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기 검증 수행 (SMR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지원사업) 전력산업기술 기준 원자력 품질보증자체 (KEPCO-EN) 증취득 인공지능 기반 방사능 누출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p>

자료: 우진엔텍,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사업영역

2024년 기준 매출비중은
용역(원자력) 64.6%,
용역(화력) 34.8%,
제품 0.6% 등임

원자력

동사는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의 설비 진단, 성능 개선 등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정비 서비스와 국산 시스템 제작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매출 비중은 원자력부문 64.6%, 화력부문 34.8%, 제품 0.6%이다. 동사는 전국 9개(화력 5개, 원자력 4개)의 발전소에 종합정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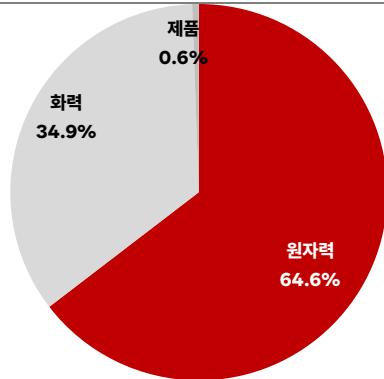
화력

동사는 화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의 경상정비용역과 계획예방정비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 매출처는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등이다. 동사가 관리하고 있는 화력 발전소는 신보령사업소, 영흥1사업소, 영흥2사업소, 태안사업소, 강릉사업소이다. 2024년 화력발전소의 경상정비용역 기준 25.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제품

동사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필요한 기술 및 부품들을 국산화하여 발전소 현장에 공급하고 있다. 동사가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는 제품으로는 전자카드 정밀점검(ICT), 감마선 영상장치(G-CAM), 방사선 감시설비(RMS), 방사선 검출기 성능 검사장비, 사용 중 핵연료검사장비(IMS), 노외증성자속감시계통 성능진단장비 등이 있다. 2022년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매출액은 2022년 14억 원, 2023년 17억 원, 2024년 3억 원을 기록하였다.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2024)



자료: 우진엔텍,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우진엔텍 사업장 현황



자료: 우진엔텍,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수주상황(2024년 기준)

(단위: 억 원)

품목	수주일자	납기	수주총액 금액	기납품액 금액	수주잔고 금액
신보령 1,2 호기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	2015.11.16	2024.12.31	148	148	-
영흥화력 1~4 호기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	2016.04.01	2025.03.31	245	229	16
영흥화력 5~6 호기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	2016.04.01	2025.03.31	117	113	3.29
태안화력 5~8 호기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	2017.02.01	2025.01.31	239	232	6.47
새울 3,4 호기 시운전공사 (계측분야)	2021.02.16	2025.10.31	94	64	30
강릉안인화력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	2021.09.15	2027.09.14	120	61	59
고리 2 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	2023.09.05	2026.09.30	196	79	117
한울 3 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	2023.12.13	2026.12.31	142	51	91
한빛 2 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	2024.08.01	2027.07.31	152	18	134
합계			1,452	996	457

자료: 우진엔텍,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③ 주주현황

최대주주는 우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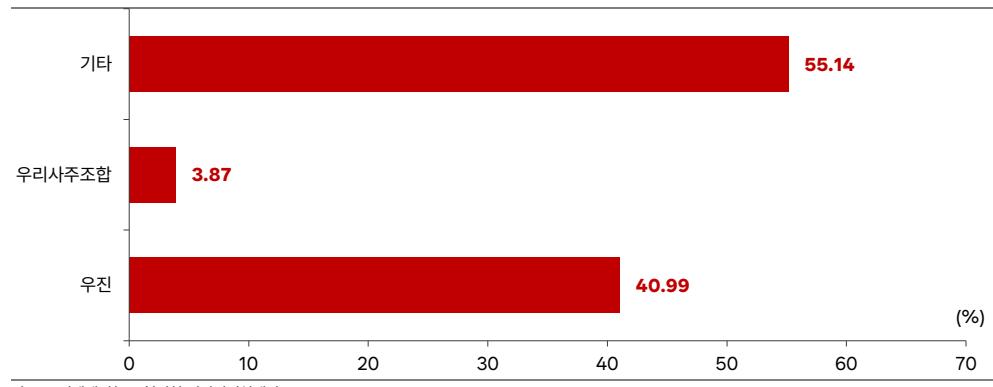
지분율 40.99% 보유

최대주주는 우진으로, 주식수 3,799,990주(지분율 40.99%)를 보유하고 있다.

우진은 1980년 설립된 산업용 계측기 제조 전문 기업으로, 축적된 계측기 관련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며, 반도체 및 산업용 온도센서, 철강산업용 자동화장치, 설비진단시스템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별도 매출액 719억 원, 영업이익 109억 원(영업이익률 15.2%)을 기록하였다. 2023년 말 기준과 최대주주의 주식수는 동일하나 2024년 1월 코스닥 시장 상장에 따른 신주 발행으로 인해 지분율은 53.15%에서 40.99%로 하락하였다.

우리사주조합은 359,119주(지분율 3.87%)를 보유하고 있다.

주주현황(2024)



 산업 현황**1 계측제어설비 정비****발전설비 정비 서비스를 통해****발전소 효율 향상 가능**

발전설비 정비 서비스는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주요 설비와 부품의 유지 보수 및 관리를 통하여 발전소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게 하는 모든 형태의 정비 서비스이다. 발전설비의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전설비의 고장빈도를 줄이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면서 가동시간을 늘려야 한다. 발전설비의 평균 수명은 기본적으로 40~60년이나 발전설비 정비 서비스를 통하여 10년 이상 설비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계측제어설비 정비란**발전소의 센서, 제어장치,****모니터링 장치, 안전시스템 등을****정비하는 것**

발전설비 정비는 정비하는 설비의 역할에 따라 기전 설비, 계측제어 설비, 수처리 설비로 구분한다. 기전 설비(기계 및 전기설비)는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변환 및 송전을 하기 위한 물리적 설비 등을 포함하며 구성요소는 터빈, 보일러, 탈황설비 등이다. 계측제어 설비는 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감시, 보호 및 제어 기능을 하는 시스템들을 의미하며, 구성요소로는 센서(유량계, 압력센서), 제어장치(PLC, DCS), 모니터링 장치(SCADA 시스템), 안전시스템(안정밸브, 차단기) 등이 있다. 수처리 설비는 발전기 등 주요 설비에서 사용되는 물을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상태로 유지하는 중요한 설비이다.

계측제어설비 정비는 사업소 배전반의 계기들을 정비하는 것으로, 결함사항의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예방정비와 계획예방정비의 계획 수립과 시행, 고장 계측기류의 진단, 수리 및 소요자재의 기술검토, 전자회로 설비의 진단, 점검 및 수리업무, 정밀계측장비 수리 및 검교정 업무 지원 등 일련의 업무를 의미한다.

원자력

국내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시장 규모의 공식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동사 및 경쟁사들의 원자력발전소 수주금액으로 유추해보면 다음과 같다.

고리2(3,4호기), 한빛2(3,4호기), 한울3(5,6호기)발전소의 발주금액을 살펴보면, 3년동안의 전체 계약금액은 각각 196 억 원, 298억 원(우진엔텍의 수주액은 152억 원), 354억 원(우진엔텍의 수주액은 142억 원)으로 1년에 한 호기당 계측제어 정비용역 금액은 평균 47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우진엔텍의 새울2발전소 시운전공사 계측분야 정비 수주 금액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94억 원이며 시운전공사의 계측제어 정비 금액은 연간 21억 원으로, 정상가동중인 발전소의 수주금액 절반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 호기는 기동중인 26기와 시운전 2기 총 28기로, 전체 원자력 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시장 규모는 약 1,264억 원(47억 원*26기+21억 원*2)으로 추정된다.

새울2발전소(새울 3,4호기)는 시운전 중이며 2026년부터 시범운전에서 경상정비로 전환되어 정비용역 매출 규모가 한 단계 증가할 예정이다. 또한, 신한울2발전소(신한울 3,4호기)는 2033년에 가동될 예정으로, 신한울2발전소가 가동되어 2기의 경상정비가 추가되면 약 1,410억 원(47억 원*30기) 규모로 원자력 부문 계측제어 경상정비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 계약은 1992년부터 발주되었으며, 초기에는 수산이앤에스가 독점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2010년 초 주요 업체들이 도산하면서 정부는 원전정비 공백을 방지하고, 후발업체 육성을 취지로 업체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현재는 8개의 업체가 한수원의 원전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중 우진엔텍, 이성CNI, 수산ENS, 한전KPS는 단독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원플랜트, 영진, 오르비스, 금화C&E는 컨소시엄 형태로만 수주가 가능하다. 상기 업체들은 모두 국내 원전산업의 주체인 한수원으로부터 사업수행능력을 엄격하게 평가받고, 등록되어 관리되며,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수원으로부터 안정성 최고 등급인 Q등급을 획득해야 한다. 신규업체의 경우, 최소 6년 이상 컨소시엄 형태로 정비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어야 단독으로 정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국내 원자력 발전소 현황



자료: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화력

화력발전소 또한,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하게 계측제어설비 시장규모 공식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동사 및 경쟁사들의 화력발전소 수주금액으로 시장규모를 유추해보았다.

동사의 화력발전소 정비용역 계약금액을 살펴보면, 9년 동안 신보령 1,2호기, 영흥화력 1~4호기, 영흥화력 5,6호기 발전소의 수주액은 각각 148억 원, 245억 원, 117억 원이다. 이는 1년동안 화력발전소당 평균 14억 원 규모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화력발전소는 58기이다. 따라서, 국내 화력 계측제어설비 시장 규모는 812억 원(14억 원*58기)으로 추정된다.

국내 화력 부문 계측제어설비 경상정비 규모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폐지가 확정된 석탄화력발전소는 28기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복합화력(LNG)발전소로 대체됨에 따라 복합화력발전 분야에서 발전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용량은 줄어들더라도 복합화력 발전용량이 증가하면서 전체 화력발전소의 발전용량은 유지될 전망이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노후 20기의 화력발전소가 폐지될 계획이며, 2036년까지 노후 8기가 추가로 폐지되어 LNG연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즉, 준공예정인 3기를 반영하면 2030년에 운영되는 석탄발전소는 41기이며, 2036년에는 33호기가 운영될 전망이다. 2023년 기준 석탄발전소의 용량은 39.2GW였으나 2030년 31.7GW, 2035년 28.1GW, 2038년 22.2GW로 감소하여 2038년에는 2023년 대비 17.0GW 줄어들 예정이다. 석탄발전소의 연도별 비중은 2023년 기준 27.1%였으나, 2030년 15.4%, 2035년 11.4%, 2038년 8.3%로 매년 비중이 줄어들며 2038년에는 2023년 대비 18.8%p 하락할 전망이다.

LNG의 경우, 2023~2026년까지 여주복합, 통영천연가스, 울산GPS 등이 준공되며 2036년까지 노후 석탄 28기가 LNG로 전환된다. 2023년 LNG 발전소 용량은 43.2GW였으나, 2030년 58.8GW, 2035년 64.7GW, 2038년 69.2GW로 점차 증가하며 2036년에는 2023년 대비 26GW 늘어날 전망이다. LNG발전의 연도별 발전 비중은 2023년 기준 29.9%였다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2030년 28.5%, 2035년 26.2%, 2038년 25.8%로 점차 다시 하락할 예정이다.

화력발전소 경상정비 용역은 화력 발전소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으로, 현재 신규 입찰이 중단된 상태이다. 한전KPS, 수산E&S, 우진엔텍, 이성CNI, 금화C&E, 영진, 원플랜트, 오르비스 등 총 8개의 주요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중 대기업인 한전KPS를 제외한 나머지 7개사의 합산 매출액은 2019년 1,923억 원에서 2024년 2,503억 원으로 연평균 4.5% 성장하였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70억 원에서 230억 원으로 연평균 15.4% 성장하였다.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 업체
: **한전KPS, 수산E&S, 우진엔텍,**
이성CNI, 금화C&E, 영진,
원플랜트, 오르비스

국내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의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 시장에는 한전KPS를 비롯하여 수산E&S, 우진엔텍, 이성CNI, 금화C&E, 영진, 원플랜트, 오르비스 등 총 8개의 주요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중 대기업인 한전KPS를 제외한 나머지 7개사의 합산 매출액은 2019년 1,923억 원에서 2024년 2,503억 원으로 연평균 4.5% 성장하였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70억 원에서 230억 원으로 연평균 15.4% 성장하였다.
7개사의 최근 5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영진이 11.8%로 가장 높았으며, 금화C&E(11.7%), 수산E&S(10.6%), 우진엔텍(10.5%), 원플랜트(6.6%), 오르비스(0.1%), 이성CNI(-4.5%) 순으로 나타났다.

한전KPS

한전KPS는 1984년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발전설비 정비 전문회사로, 전력설비정비(화력, 원자력/양수, 송변전, 대외, 해외)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신재생발전설비 건설공사와 O&M(운전 및 정비) 등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2024년 연간 매출액은 1조 5,571억 원, 영업이익은 2,095억 원(OPM 13.5%)이다. 별도기준 매출액은 1조 5,343억 원으로, 사업부문별 매출비중은 화력 33.2%, 원자력/양수 42.3%, 송변전 7.3%, 대외 7.1%, 해외 10.1%이다. 한전KPS는 태안 1~4,910호기, 당진화력 9,10호기, 보령 1~8호기 및 서천 1,2호기 등 화력 발전소의 계측제어설비 경상정비용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새울1, 한빛3, 월성2 원자력 발전소의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도 수행하고 있다.

수산ENS

수산이앤에스는 2011년 8월 설립된 국내 계측제어설비 정비 회사로, 2012년 2월 삼창기업의 원자력 및 화력 사업부문, 6월 포스코아이씨티 원전 PLC 사업부문을 인수하였다. 수산이앤에스는 국내 처음으로 APR1400 원자로에 대한 MMIS(원전 계측제어시스템) 안전등급 제어기기(PLC)를 자체 개발하고,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 납품한 이력이 있다. 2024년 기준 수산ENS의 매출액은 1,005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121억 원(OPM 12.0%)이다.

수산이앤에스는 화력발전소로는 하동, 고성하이, 여수, 삼천포, 당진 1~4호기 계측제어설비 경상정비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로는 한빛1, 한울1, 고리1, 월성1, 신한울1 발전소 계측제어 설비 정비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수산이앤에스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UAE BNPP(아랍에미리트 바리카 원자력 발전소) 1~4호기 전기, 계측 시운전공사를 수주한 경험도 있다.

이성CNI

이성씨엔아이는 1971년 설립된 이성설비가 인적분할하여 2016년 설립된 회사로, 정유, 화학, 발전 시설 계측제어 설비의 설계, 제작, 시공, 정비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엔지니어링 회사이다. 사업부문으로는 이성씨엔아이가 영위하는 원자력, 화력, 시스템엔지니어링, 전기/계장공사가 있으며, 자회사인 에이젠크어가 수소 동위원소(삼중수소)와 국방사업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2024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132억 원, 영업이익은 57억 원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매출 비중은 원자력 부문 47.6%, 기타(군 과학화 사업, 운송 물류주선 사업 등) 52.4%이다. 이성씨엔아이는 영진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울2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금화C&E

금화C&E는 2001년 3월에 설립되어 원자력 및 수화력 발전소의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과 자동전압제어기(AVR) 제작 공급 및 전기 공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3년 7월 금화피에스시의 종속회사(지분율 100%)로 편입되었다. 2024년 기준 매출액은 189억 원, 영업이익은 11억 원(OPM 5.8%)을 기록하였다. 금화C&E는 원자력과 화력 발전소의 주제어 및 보조제어 설비, 현장계장/계측기, 시운전 및 기술진단 등의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화력발전소는 삼척발전소의 계측제어설비 경상정비 위탁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로는 고리3과 신한울1 발전소의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플랜트

원플랜트는 1995년 설립된 발전설비정비 전문회사로, 2003년 보령화력 제3호기를 시작으로 경상정비와 계획예방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화력, 원자력, 환경 및 산업설비,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4년 기준 매출액은 99억 원, 영업이익은 11억원(OPM 10.7%)을 기록하였다. 현재 새울1발전소 계측제어설비 경상정비 및 계획예방정비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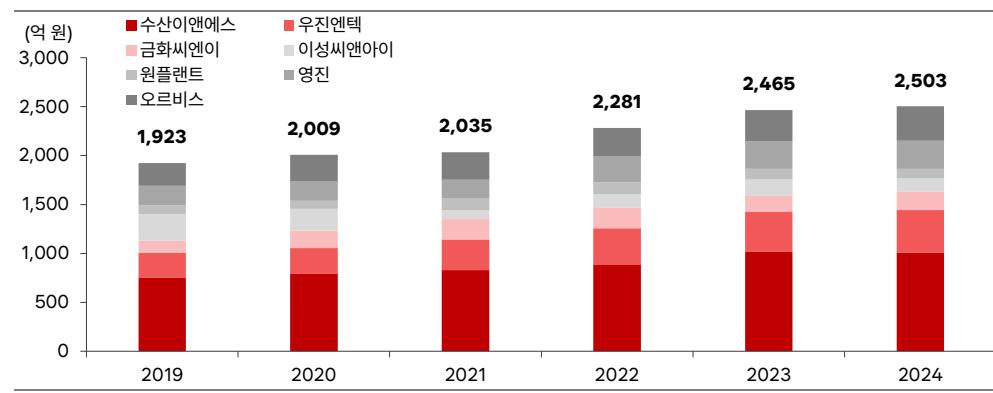
영진

영진은 전기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매출액은 286억 원, 영업이익은 36억 원(OPM 12.7%)을 기록하였다. 발전설비, 송변전, 석유화학/산업/환경플랜트, 조선/해양플랜트, 일반전기/기계 등의 사업분야에서 전기설비, 계측제어설비, 기계설비 시공 및 경상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용역은 한울2,3발전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오르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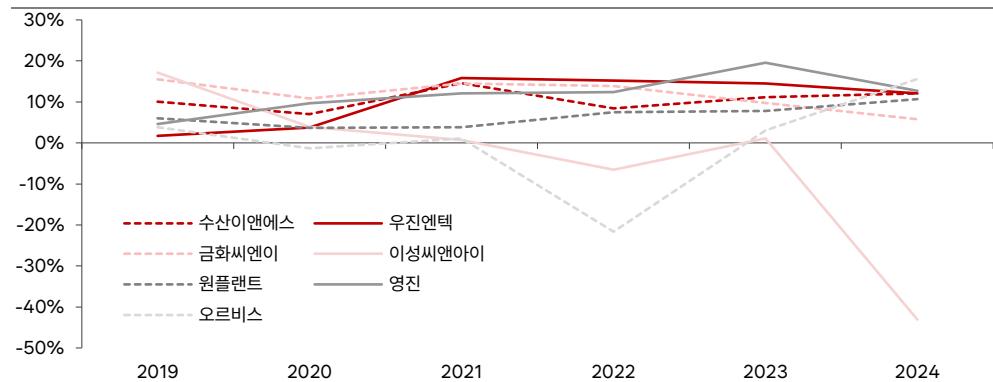
오르비스는 화력, 원자력, 수력, 양수 및 복합화력발전소의 발전설비 안정화에 필요한 측정기기의 제조 납품 및 유지보수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매출액은 352억 원, 영업이익은 55억 원(OPM 15.6%)을 기록하였다. 오르비스는 전기, 제어, 밸브 분야에서 RMRT(고압전동기 원격 절연저항 측정시스템), VLMS(밸브 누설 감시시스템), BTLD(보일러 튜브누설 감시시스템) 등 측정·감시시스템 설비를 제조하고 있으며, 한빛2발전소와 하동 화력 1-4호기 및 GS동해전력발전소 1,2호기 계측제어설비 경상정비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계측제어 정비용역 7개사 매출액 추이



자료: 각 사의 사업보고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계측제어 정비용역 7개사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각 사의 사업보고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② 원전 해체 시장

원전 해체란 발전소 건설 이전의 환경으로 되돌리는 과정으로, 영구정지 준비단계, 안전관리단계, 제염·철거 및 부지복원 단계로 진행

원전 해체란 발전소 운전 과정에서 생성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여 발전소 건설 이전의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되돌리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원자력 발전소는 해체 과정에서 다양한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며, 관계 법령과 시설, 장비의 제한 등으로 대규모 처리가 어려워 평균적으로 일반 건물 해체기간보다 훨씬 긴 기간이 필요하다.

원전 해체의 절차는 1)영구정지 준비단계, 2)안전관리단계, 3)제염 및 철거, 4)부지 복원단계 順이다. 원전 해체의 첫번째 단계인 영구정지 준비단계에서는 2년 동안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고, 해체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안전관리단계에서는 5년에 걸쳐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해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고, 해체사업 조직을 구성하여 해체계획서 작성 및 제염과 해체공사 사업기본계획 등을 수립한다. 제염 및 철거단계에서는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시설, 장비 등을 안전하게 정화하고, 방사능 농도를 줄이며, 원자로 및 내부구조물을 절단하고 해체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의 작업이 6년 이상 진행된다. 여기서 제염이란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각종 계통 및 구성품, 콘크리트, 부지 등을 물리화학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으로, 안전한 해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후, 부지복원단계에서 부지 잔류방사선 평가, 최종부지 상태 보고서 및 해체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최종 검사를 맡게 된다. 이 단계는 2년 이상 소요되며 결과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해체 과정을 모두 마치는데 최소 15년 이상이 걸린다.

원전 해체 단계별 절차 및 단계에 따른 기술 분류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원전 해체 예정 2기 : 고리1호기 & 월성1호기

국내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30기 중 2기가 영구정지 후 해체를 준비 중으로, 해체 예정인 원전 2기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이다. 두 원전 모두 한국수력원자력이 총괄하여 진행하고 있다. 고리1호기(587MW)는 1978년 4월 국내 처음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원전으로, 30년의 설계수명과 10년간의 계속운전을 거쳐 2017년 영구 정지되었다. 현재 고리1호기는 국내 최초로 계통제염 작업이 진행 중이며, 2025년 상반기 중 원전해체 승인을 받고, 2032년 12월 해체 사업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월성1호기(679MW)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하였으며, 2019년 12월 영구 정지되었다. 한수원이 제출한 해체 승인 신청서에 대해 202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월성1호기는 2026년 해체 승인을 받은 뒤, 이르면 2034년까지 해체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월성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가압 중수로형 원전으로, 해체를 진행하게 되면 세계 최초로 중수로 발전소를 해체하는 사례가 된다.

2030년까지 운전허가기간 만료 대상원전인 10기 모두 계속운전심사 과정 진행 중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외 국내 원자력 발전소 해체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는 해체 예정인 원전 2기 외 수명만료 시점에 도달하고 있는 원전의 호기수가 증가하고 있다. 2030년까지 운전허가기간 만료 대상 원전은 10기(고리2,3,4호기, 한빛1,2호기, 한울1,2호기, 월성2,3,4호기)이며, 10개 원전 모두 계속운전 심사 과정에 있다. 이 중 현재 설계 수명이 만료되어 가동을 멈춘 원전은 고리 2,3호기로, 각각 2023년 4월 8일, 2024년 9월 28일에 가동을 중단하였다.

계속 운전이란 운전허가기간에 도달한 원전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만족하여 운전허가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10기 모두 계속운전 절차를 통해 심사가 승인되면 10년 이상 더 가동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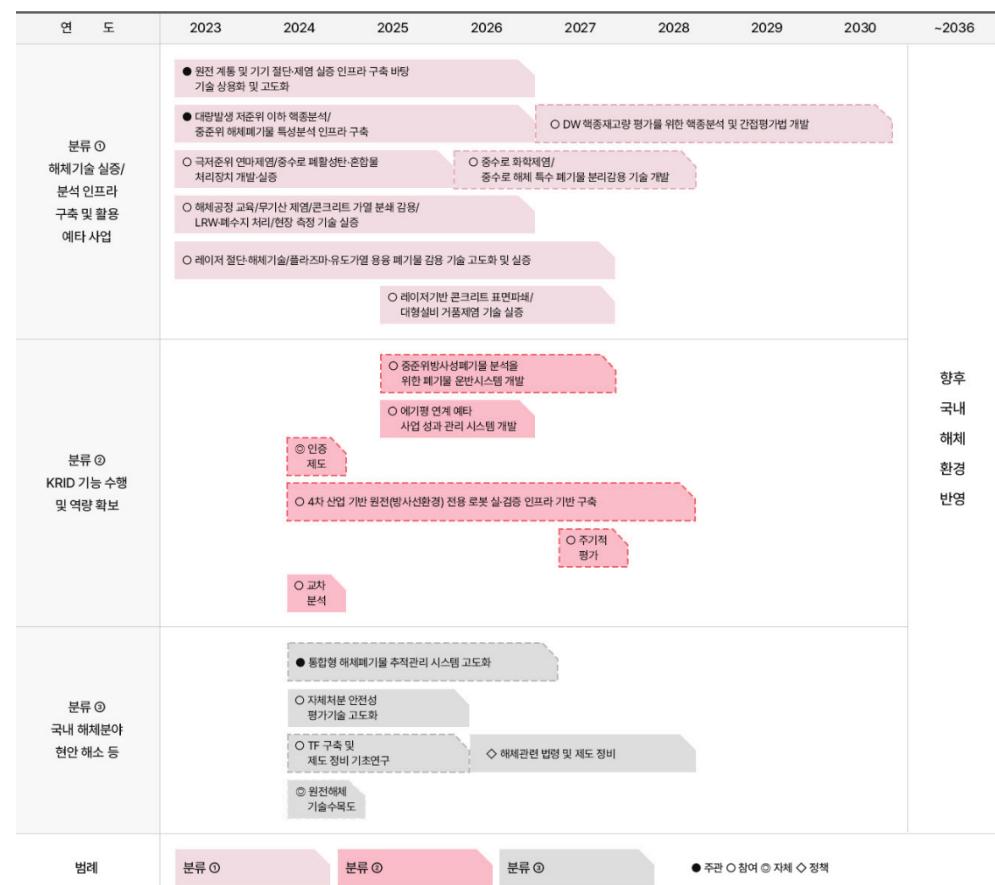
2020년 설립된**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의
주관으로 원전해체 사업 지원 및
기술 고도화 예정**

원전 해체는 방사선안전관리, 기계, 전기, 화학, 토건 등 여러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복합된 종합 엔지니어링 기술이 적용되는 산업으로, 고방사선의 극한 환경에서 해체 작업이 이루어져 제염, 철거, 원격 제어 등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2020년 원전 해체 기술 실증 및 고도화, 해체 사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정부, 지자체, 원전 유관 공공 기관(한수원,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기술)이 협력하여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KRID)가 설립되었다. KRID는 원전 해체를 전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원으로, 원전해체 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원전계통과 화학·물리제염, 원전환경 및 부지측정, 해체 폐기물 특성 분석 등 정부 R&D 사업을 주도한다.

2030년까지 운전허가기간 만료 원전 현황

안전성평가	● 최신 기술기준 활용 ● 해외사례 벤치마킹	>>	안전기준 만족	대상	운전허가 종료	안전성평가 제출	운영변경허가 신청
				고리2호기	'23. 4	'22. 4.	'23. 3. (심사종)
인허가	● 규제기관-사업자 소통 활성화 ● 인허가 통합시스템 구축	>>	행정 소요 최소화	고리3호기 고리4호기	'24. 9 '25. 8	'22. 9.	'23.11. (심사종)
				한빛1호기 한빛2호기	'25.12 '26. 9	'23. 6.	'24.12. (심사종)
설비개선	● 안전설비 보강 ● 장기사용 설비 교체	>>	설비 안전성 향상	한울1호기 한울2호기	'27.12 '28.12	'23.10.	'24. 9. (심사종)
				월성2호기	'26.11	'24. 4.	검토중
조직운영	● 계속운전 전담조직 신설 ● 옥외형 전문인력 확보	>>	전문성 확보	월성3호기 월성4호기	'27.12 '29.2	'24. 4.	검토중

자료: 열린원전운영정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원전해체 기술 로드맵

자료: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1 원전 해체 시장의 기회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해체로

국내 원전 해체 시장 개화 예상

국내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 후 해체를 준비 중이며, 가동이 만료된 원전이 해체됨에 따라 국내 원전 해체 시장이 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진엔텍은 2023년 정부 유관기관에서 주관하는 두 건의 원전 해체 기술개발 국책과제 수행기업으로 선정되어 방사선 측정과 관련한 원전해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해체 대상인 발전소의 해체 시나리오를 결정하고 해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방사선학적 측정자료가 필요하며, 동사는 원전 해체공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인 방사선 계측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제염단계부터 동사의 핵심 기술이 적용된다.

첫번째 과제

: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개발

첫번째 과제는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개발’이다. 동사는 2023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 9개월간 ‘가동 및 해체 원전의 안전관리를 위한 광범위(최소 3m) 감마선/중성자 누출 감시용(10kg) 3차원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개발’ 국책과제에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연구개발 비용은 약 25억 원이다. 이 과제의 목표는 작업자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감마선과 중성자의 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광범위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감마선, 중성자)의 누출 위험으로부터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동사는 3차원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통해 방사선 피폭을 모니터링하고, 방사능 누출과 폐기물 저장시설에 대한 감마선, 중성자 반응을 감시하고, 부지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하게 된다. 동사는 이미 검출기 설계, 신호처리회로 설계, 시스템 구축, 성능예측 시뮬레이션 및 인공지능 기반 의료영상생성 등 방사선 영상기기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용 및 임상용 감마선 영상장치(Gamma Camera)와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 의료기기(PET) 개발 경험이 있다. 동사는 대한민국 신기술(NET)로 인정받은 감마선 영상장치(G-CAM)을 고리 1발전소에 공급한 실적도 보유하고 있다.

두번째 과제

: 원전 해체 현장 방사능

측정시스템 개발 및 실증

두번째 과제는 ‘원전 해체 현장 방사능 측정시스템 개발 및 실증’이다. 동사는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舊 원전해체 연구소)을 포함한 10곳의 민간기관들과 함께 핵심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연구개발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 9개월로, 연구개발비는 총 111억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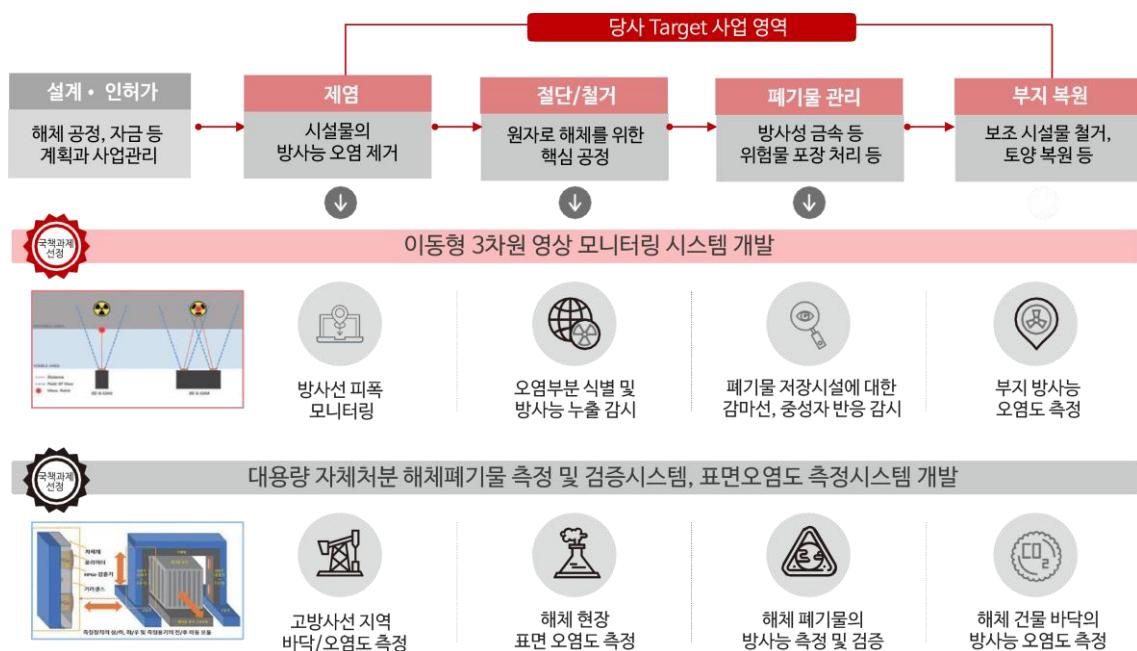
원전 해체 시에는 방사성폐기물이 다양으로 발생하여 폐기물의 효율적인 저감과 작업자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실시간 토양 오염 준위와 원전 해체 현장 방사능 측정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동사는 이 연구를 통해 대용량 자체처분 해체 폐기물을 측정 및 검증 시스템과 해체시설 바닥/벽면 등의 표면오염도 자동 측정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이후 개발이 완료되면 한국 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과 함께 검증하여 사업화가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원전 해체 시장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이 발생 가능한 산업시설에도 적용 가능하여 사업이 확장될 수 있다.

동사가 개발한 기술과 시스템이 사업화 되면서, 국내 첫 해체 예정인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2026년부터 동사가 본격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원전 1기당 해체에 소요되는 총비용(총당금)은 8,726억 원으로, 이중 밀폐관리 철거비가 5,467억 원, 폐기물 처분비가 3,256억 원을 차지한다. 국내 원전 해체 산업 규모는 총 30기를 대상으로, 호기당 해체 비용을 적용할 경우 전체 시장 규모는 약 26.2조 원으로 추정된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가동 만료된 원전들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 역시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해체를 통해 국내 기술력을 검증하고, track record를 확보하여 향후 해외 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IAEA PRIS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전세계 가동 중인 원전은 415기, 영구 정지된 원전 수는 214기이며, 이 중 해체를 완료한 원전은 22기이에 불과하다. 해체 완료 국가는 미국(17기), 일본(1기), 독일(4기) 등으로, 대부분 국가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글로벌 원전해체 단계별 시장규모를 2020년부터 2145년까지 약 500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전 해체 공정



자료: 우진엔텍,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3차원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자료: 우진엔텍,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감마선 영상장치(G-CAM)



자료: 우진엔텍,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새울2발전소 가동

원자력발전소 정비 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기술자 평가 점수 및

예비인력 관리가 중요

발전설비 정비사업의 주요 경쟁력은 풍부한 경험, 기술을 보유한 고급 기술 인력 및 인력 관리 역량이며, 발전설비 정비 업체들의 경쟁 요인으로는 해당 정비영역의 면허 보유 여부, 공사수행실적(시공능력평가), 시공경험, 업체경영평가 등이 있다. 원자력의 경우, 적격업체 등록 시 대상설비별 기술 인력을 총족시켜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에 맞는 정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원자력발전소 정비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기술자 평가 점수와 예비 인력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입찰을 위한 기술자 평가 점수 중 동일 노형 발전소 기술자의 경험 점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차기 용역 입찰 시 당해 발전소의 정비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 추가로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새로 건설된 발전소도 같은 형식으로 입찰이 진행되어 시운전공사를 수행하는 기업이 해당 발전소의 경상정비용역까지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 시운전정비공사에 참여할 경우 연료 장전에서부터 주요 시험에 참여하고, 각종 도면을 분석하여 설비를 이해하게 되며, 중공 직후 상업 운전에 돌입할 수 있도록 설비를 정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사는 2021년 2월 16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한국 표준형원전 차세대 모델인 새울 2발전소의 계측제어설비 분야 시운전 정비 수주를 받았으며, 계약금액은 94억 원이다. 동사는 APR-1400 노형을 기반으로 한 한국 표준형 원전의 차세대 모델에서 경상정비와 시운전공사를 동시에 수행한 기업으로, 추후 경상정비 신규 입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가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새울 2발전소는 2026년 준공될 예정으로, 준공 후에는 시운전에서 상업운전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운전 공사용역이 종료되고, 신규입찰을 통해 경상정비로 전환된다. 이때 동사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동사의 새울2발전소 계약금액을 통해 추측해보면 연간 약 21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며, 앞서 언급했듯이 시운전 공사에 비해 경상정비 사업의 수주 금액은 두 배 이상이므로 동사가 새울 2발전소 계측제어 분야의 경상정비 사업을 추가로 수주할 경우 연간 42억 원의 추가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3 원전 운영의 핵심 부품 국산화

소내 방사선 감시계통 케이블

어셈블리, 광범위 지역감사용

방사선 검출기, ENFMS

신호처리함 등 원전 운영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진행

원자력 발전소의 계측제어설비(MMIS, 제어기, 센서)는 소모성 부품으로, 고온과 고방사선 환경에 자주 노출될 경우 성능 저하와 부품 노후화로 수명이 단축되므로 주기적인 부품 교체가 필요하다. 현재 발전소에 계측제어설비들을 공급하는 해외 기업들이 폐업하거나 제품 생산을 중단하면서 발전소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업체로 부품 교체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국내 계측제어설비들은 대부분 단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며, 발전소 설비들은 고난도 아날로그 기술과 첨단 디지털 기술이 융합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상 계측제어설비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주요 계통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분석 능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사에게는 국내 업체로의 부품 교체 수요 증가가 기회의 요인이다. 동사는 이미 다수의 부품을 납품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개발을 통해 제품 매출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 보조급수펌프 터빈 속도제어 판넬

보조급수펌프 터빈 속도제어 판넬은 원자력 발전소 보조급수계통(안전계통)의 핵심 설비로, 원자로 주급수계통의 냉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면 보조급수계통의 펌프 속도를 제어하여 노심의 잔열을 제거하는 주요 안전설비이다. 속도제어 판넬은 영국의 Terry社에서 생산이 중단되면서 예비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동사는 속도제어 판넬을 2018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2년에 걸쳐 개발하였으며, 2021년 한수원의 예비품 공급 유자격을 취득하였고, 2024년까지 수의계약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2022년 한빛1발전소에 보조급수펌프 터빈 속도제어판넬 2식을, 2023년에는 고리2발전소에 제품을 납품하였으며, 두 해 모두 1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이는 기존 아날로그 신호 제어기를 최신 디지털 제어기로 대체한 결과로, 동사가 개발한 보조급수펌프 터빈 속도제어 판넬은 한빛1, 고리2발전소를 포함해 국내 모든 원자력 발전소 설비에 적용 가능하다.

2) 광범위 지역감사용 방사선 검출기

광범위 지역감사용 방사선 검출기는 저선량에서 고선량 영역까지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미국 Canberra社에서 월성 원자력 1,2발전소에 공급한 방사선 검출기가 장기간 사용으로 열과 스트레스로 인해 부품이 점차적으로 손상되거나 변형되어 검출된 선량 데이터가 현장 제어장치까지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동사는 2023년 4월 월성2발전소로부터 기술 개발을 의뢰받아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였다. 2023년 말부터 월성 원자력 1,2발전소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다른 발전소에도 제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3) 소내 방사선 감시계통 MI(Mineral Insulated) 케이블 어셈블리

소내 방사선 감시계통 MI 케이블 어셈블리는 방사선 노출 및 화재를 방지하는 케이블로, 발전소 건설 초기에는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여 설치되었으며, 운전 기간 중 발생하는 교체 제품 또한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여 사용해 왔다. 하지만 미국 Apanteck社에서 새울 1발전소에 공급한 제품에서 고순도 절연저항 특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 산화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발주자인 한수원의 요구사항에 따라 동사의 최대주주이자 원자력 계획기 전문기업인 우진과 2020년 11월부터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하였다. 2024년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2025년 한수원의 개발선정품으로 공식 지정 후, 2026년부터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4)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ENFMS, Excore Neutron Flux Monitoring System) 신호처리함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 신호처리함은 중성자속 검출을 이용하여 원전 출력을 제어하고 감시하는 안전관련 아날로그 신호처리 장치로, 4개 세트의 안전 채널과 2개 세트의 기동 및 제어 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Westinghouse社에서 최초 공급한 ENFMS 신호처리함은 2010년 이후 생산이 중단되었다.

동사는 2021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를 연구기간으로 설정하여 자체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2022년 자체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2024년 동사는 시제품 개발 및 관련된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성능검증을 완료하여 2026년부터 ENFMS 신호처리함 제품 공급이 중단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향후 ENFMS 신호처리함은 SMR(소형모듈원자로) 사업의 국산화 핵심 장비로도 적용될 수 있다.

제품 매출액은 2022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2022년 14억 원, 2023년 17억 원, 2024년 3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에서 제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6%, 4.2%, 0.6%이다. 현재 제품 매출 비중은 미미하지만, 기술연구소의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제품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 발전소에 제품을 성공적으로 납품할 경우 모든 동일 노형 발전소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지속적인 제품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제품의 납품 이력을 바탕으로 새로 개발된 제품도 원자력 발전소에 적용될 가능성성이 높아 동사의 제품 매출 비중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보조급수펌프 터빈 속도제어 패널



자료: 우진엔텍,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노외중성자속감시계통 신호처리함



자료: 우진엔텍,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1 2024년 실적 분석

2024년

매출액은 440억 원(yoy 8.1%),

영업이익 53억 원(-9.7%)

2024년 연간 매출액은 440억 원으로 전년대비 8.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3억 원으로 전년대비 9.7% 감소하였다. 동기간 영업이익률은 12.1%로 전년대비 2.4%p 하락하였다.

사업부문별로 매출액을 살펴보면 원자력 부문 매출액은 284억 원으로, 전년대비 16.1% 증가하였다. 원자력 부문 매출 비중은 2022년 56.8%였으나, 2023년 60.1%, 2024년 64.6%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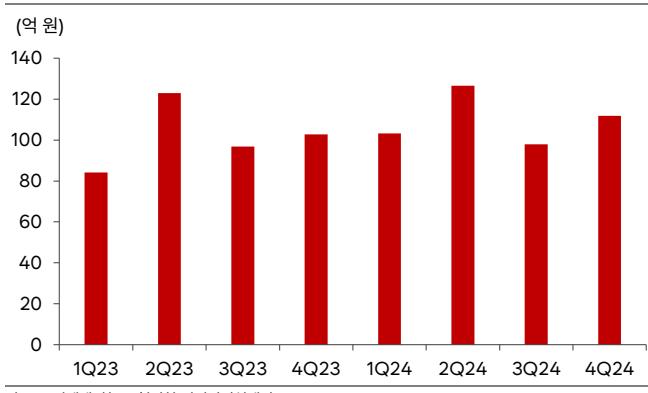
동사의 사업장 수는 증가하지 않았지만, 사업장당 매출규모가 증가하여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동사의 고객사는 공공기관으로 작년과 동일한 사업소들을 운영하더라도 임금 및 물가 상승 등의 물가 변동을 고려한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있어 수주단가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력 부문 매출액은 153억 원으로 전년대비 5.6% 늘어났다. 화력 부문 매출 비중은 2022년 39.6%에서 2023년 35.7%, 2024년 34.8%로 하락하였다. 화력은 원자력 부문과 동일하게 정비하는 발전소의 수는 그대로이지만, 사업장당 매출규모가 증가하여 매출이 증가하였다.

제품 매출액은 3억 원으로 전년대비 85.5%(-15억 원) 감소하였다. 제품 매출은 2022년 처음 발생하였으며 매출 비중은 2022년 3.6%, 2023년 4.2%였으나, 2024년에는 0.6%로 전체 매출 비중이 크게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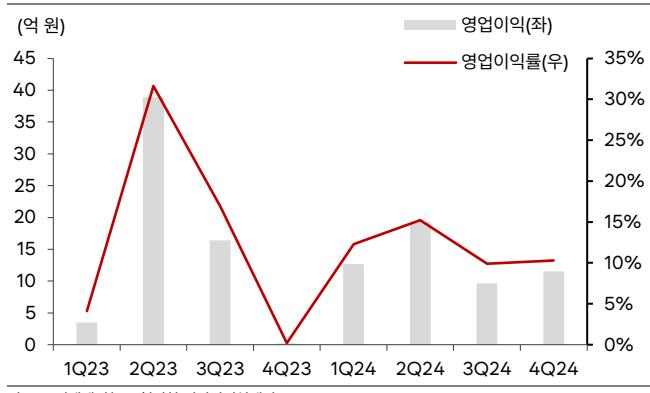
매출액은 증가하였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한 배경에는 매출원가 및 판관비가 2023년 348억 원에서 2024년 386억 원으로 11.1%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24년 사업보고서 상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더한 비용의 성격적 분류 항목을 참고하면 종업원 급여가 2023년 249억 원에서 266억 원으로 6.9% 증가하였으며, 외주비 또한 2023년 34억 원에서 2024년 41억 원으로 19.9% 늘어났다.

분기별 매출 추이



자료: 우진엔텍,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분기별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우진엔텍,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2025년 실적 전망

2025년

매출액 448억 원(yoy +1.9%),

영업이익 62억 원(yoy +16.6%)

전망

2025년 기준 매출액은 448억 원으로 1.9%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62억 원으로 1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이익률은 13.8%로 전년대비 1.7%p 상승할 전망이다.

원자력 부문 매출액은 273억 원으로 전년대비 3.8% 감소할 전망이다. 한수원의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 10차 계약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4개 발전소를 대상으로 입찰이 진행되었다. 11차 계약 발주는 2026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2025년에는 기존 수주 발전소들에 대한 정비가 지속될 것이다. 다만, 2024년에는 원자력 발전소의 계획예방정비가 집중되어 있던 해로, 2025년은 이로 인한 기저효과로 계획예방정비 매출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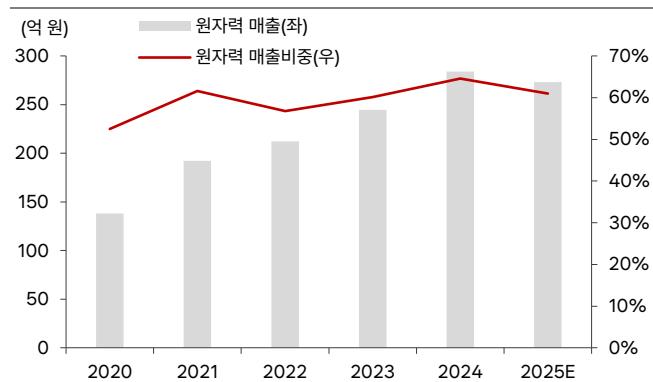
화력 부문 매출액은 160억 원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할 전망이다. 2024년에 정비를 수행하던 5개의 화력 발전소와 모두 6개월 단위로 연장 계약을 체결하며 2025년에도 동일한 수준의 정비가 유지될 전망이다.

제품 매출은 15억 원으로, 전년대비 400.0%(+12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4년에는 제품 매출 공백이 발생하였으며, 2025년 제품 매출은 2022년, 2023년의 제품 평균 매출액 수준으로 가정하였다. 동사는 한빛1발전소와 고리2발전소에 보조급수펌프 터빈 속도제어 판넬을 납품한 이력이 있으며, 광범위 지역감시용 방사선 검출기를 월성1,2발전소에 납품하였던 경험도 가지고 있다. 2025년에도 동일한 문제를 가진 발전소에 제품 공급이 기대된다.

2025년 영업이익률 개선을 기대하는 이유는 일회성 비용 소멸 효과가 크다. 동사는 2024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발행제비용(인수수수료, 상장심사수수료, 상장수수료, 등록세 등)만 약 6.1억 원이 발생하였다. 발행제비용을 제외할 경우, 동사의 2024년 영업이익률은 13.5%이다. 또한, 제품 매출 증가도 영업이익률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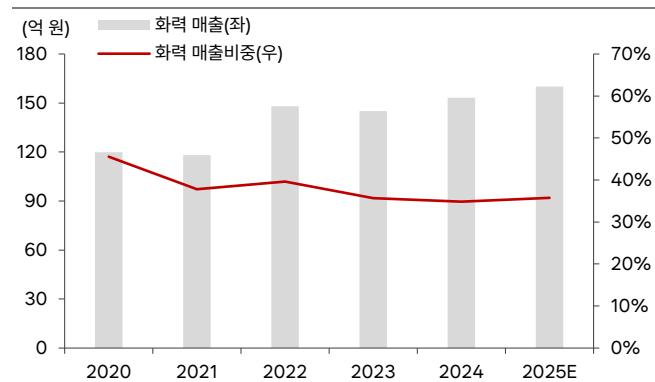
동사의 원전 해체 관련 사업은 해체 공정 중 시설물의 방사능 오염을 제거하는 제염 단계부터 참여하게 된다. 고리1호기가 2024년 5월부터 제염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1호기의 해체를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승인할 예정임에 따라 동사의 해체 관련 매출이 2025년말이나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월성1호기 역시 2025년 2월 해체 허가 심의에 착수함에 따라 향후 해체 승인이 이뤄질 경우, 추가적인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자력 부문 매출 및 매출비중 추이



자료: 우진엔텍,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화력 부문 매출 및 매출비중 추이



자료: 우진엔텍,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우진엔텍 연간 실적 전망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263	312	374	407	440	448
원자력	138	192	212	244	284	273
화력	120	118	148	145	153	160
상품	5	2	-	-	-	-
제품	-	-	14	17	3	15
매출비중						
원자력	52.5%	61.5%	56.8%	60.1%	64.6%	60.9%
화력	45.5%	37.8%	39.6%	35.7%	34.8%	35.7%
상품	2.0%	0.6%	-	-	-	-
제품	-	-	3.6%	4.2%	0.6%	3.3%
영업이익	10	50	57	59	53	62
영업이익률	3.7%	15.8%	15.2%	14.5%	12.1%	13.8%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2	45	48	53	54	64
지배주주지분 순이익률	-0.7%	14.3%	12.7%	12.9%	12.3%	14.3%
매출액증가율	4.5%	18.6%	19.6%	8.9%	8.1%	1.9%
영업이익증가율	122.7%	4061%	14.6%	3.9%	3.9%	16.6%
순이익증가율	적전	흑전	6.5%	10.6%	2.7%	18.3%

자료: 우진엔텍,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현 주가는 2025년 PER 24.9배,**PBR 3.1배로 동종업종 대비****고평가 상태**

현 주가는 2025년 추정실적대비 PER 24.9배, PBR 3.1배 수준이다. 이는 2025E 코스닥 평균(PER 22.2배, PBR 2.2배) 대비 고평가 수준이며, 유틸리티 업종 평균(PER 3.1배, PBR 0.4배) 대비로도 높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다.

2024년 1월 IPO 당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 결과 동사의 확정공모가는 희망공모가액(4,300원~ 4,900원)을 초과하는 5,300원으로 결정되었다. 동사는 2024년 1월 8일부터 12일까지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결과 1,262.32대 1로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2024년 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 당시 주가는 공모가 대비 300.0% 급등한 21,200원으로 장을 마감하였으며, 이튿날에도 상한가를 기록하였다. 2024년 5월 28일에는 종가가 51,300원까지 급등하였으며, 그 당시 PBR은 9.3배 수준이었다. 이러한 주가 상승은 원자력 발전 생태계 강화와 윤석열 정부의 원전 투자 확대 정책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가 수익률 기준으로는 2024년 상장 당시(2024.01.24) 대비 동사의 주가는 18.6% 하락하며,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 하락률 13.6%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현 주가는 고점(2024.05.28) 대비로는 63.7% 떨어졌다.

동사는 IPO 공모가 산정에서 상대가치평가 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소속업종 및 해당기업의 성장, 수익, 위험을 반영 할 수 있는 모형인 PER을 활용하였으며, 공모 당시 유사기업으로는 한전KPS, 수산인더스트리, 일진파워, 금화피에스 시를 선정하였다. 당시 공모가격에 적용된 PER배수는 4개사의 평균인 10.16배였다.

유사기업 중 2025E 컨센서스가 있는 기업은 한전KPS가 유일하다. Peer업종의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한전KPS가 1조 9,080억 원으로 가장 크며, 그 뒤를 이어 수산인더스트리 2,803억 원, 금화피에스시 1,572억 원, 일진파워 1,325억 원 순이다. 대기업인 한전KPS를 제외한 3개사의 2024년 말 자본총계 기준 평균 밸류에이션은 PER 7.4배, PBR 0.6배이며, 개별 기업별로는 수산인더스트리가 PER 7.1배, PBR 0.5배(ROE 7.8%), 일진파워는 PER 11.5배, PBR 0.9배(ROE 7.9%), 금화피에스시는 PER 3.7배, PBR 0.4배(ROE 11.6%)을 기록하였다. 이와 비교해볼 때, 동사의 2025년 기준 주가 밸류에이션(PER 24.9배, PBR 3.1배)은 비교대상 동종업체대비 높게 평가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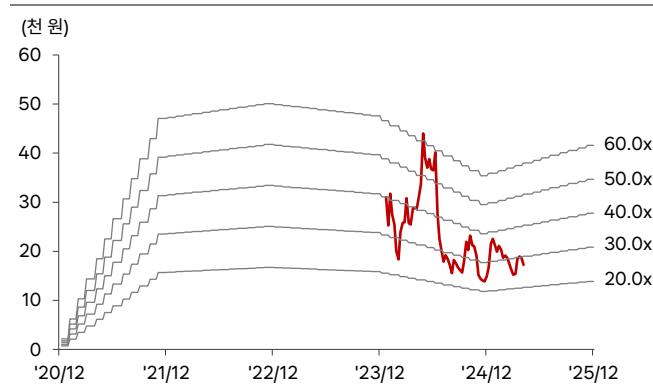
현 주가는**원전 산업에 대한 국내외 정책****기조 및 해외 수주 기대감****반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에 위치**

동사의 주가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형성하고 있는 배경에는 원전 산업에 대한 국내외 정책 기조와 향후 해외 수주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안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재조명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산업 육성이 본격화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 모멘텀 속에서 원전 계획제어정비 분야에 특화된 동사는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각되었다. 더불어, UAE 바라카 원전을 비롯해 사우디, 체코, 폴란드 등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가능성 확대는 동사의 중장기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주가 수준은 이러한 기대가 일정 부분 선 반영된 밸류에이션 구간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가가 고점(2024/5/28) 대비 63.7% 하락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들의 밸류에이션을 감안한다면 동사의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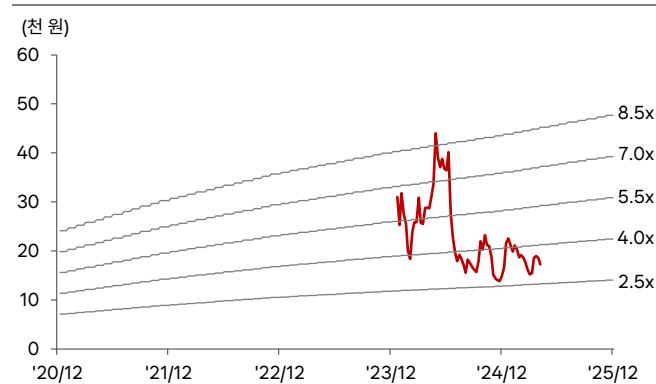
ROE는 PBR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 중 하나이다. 동사의 ROE는 2021년 24.8%에서, 2022년 21.5%, 2023년 18.3%, 2024년 13.4%, 2025E 기준 12.9%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주가의 재평가를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 해체 시장 진출을 통한 신규 매출 창출, 계측제어 관련 국산화 제품 개발 및 생산,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전 사업 진출 등의 구체적인 사업 성과가 필요해 보인다.

PER B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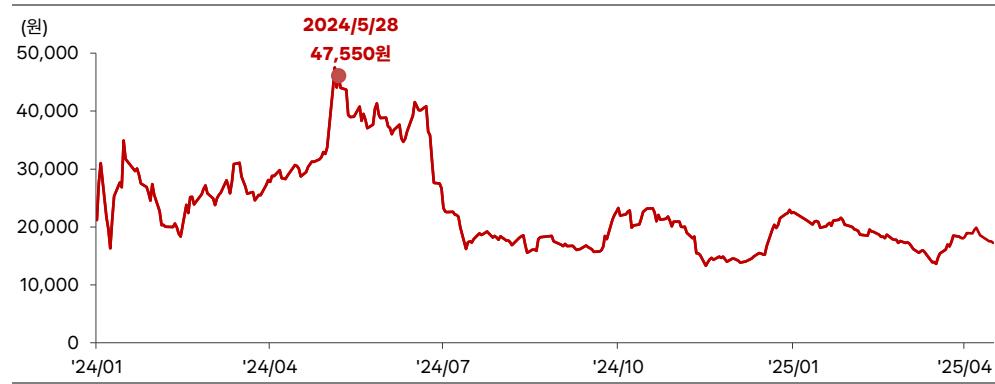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PBR Band



자료: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우진엔텍 주가차트



자료: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Peer Valuation

기업명	종가	시가총액	연초대비 수익률	매출액(십억 원)		영업이익(십억 원)		P/E(배)	P/B(배)
	(원/주)	(십억 원)	(%)	2024	2025E	2024	2025E	2025E	2025E
코스피	2,577	2,110,383	7.4%	3,720,915	2,995,559	249,507	293,032	9.3	0.8
코스닥	723	370,767	6.5%	333,543	109,010	11,092	10,569	22.2	2.2
우진엔텍	17,260	160	22.5%	44	45	5	6	24.9	3.1
한전 KPS	42,400	1,908	-3.9%	1,557	1,606	210	216	11.0	1.4
수산인더스트리	19,620	280	11%	317	N/A	44	N/A	N/A	N/A
일진파워	8,790	133	10.3%	193	N/A	10	N/A	N/A	N/A
금화피에스씨	26,200	157	6.7%	340	N/A	36	N/A	N/A	N/A

자료: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리스크 요인

1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동사는 사업은 정부 에너지 정책과

밀접한 연관성 존재

동사는 원자력 및 화력 발전소 정비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5년 주기로 '에너지 기본 계획'을, 2년 주기로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수립 및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발전설비 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당사의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 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폐기하고 신규 원전 건설 재개와 원자력 발전소 비중 확대 등 친원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1차 전기본에도 신규 원전 건설 계획과 원전 비중 확대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과거 정권에 따른 에너지 정책 변화는 원자력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쳐 왔으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부 환경 변화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동사는 기존 발전소 정비 사업 외에도 원전 해체 시장 진입, 원전 운영에 필요 한 핵심 부품의 국산화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구조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비 사업에 집중된 매출 구조에서 벗어나 외형 성장 및 안정적인 수익 기반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2 석탄화력 발전소 설비용량 감소

석탄화력발전에서

복합화력발전으로 대체될 예정

화력발전은 석탄화력과 복합화력(LNG) 발전으로 구분되며, 동사는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발전설비 정비용역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동사의 화력 발전소 매출액은 153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34.8%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 및 전세계적인 탈석탄 움직임에 따라 석탄화력 설비의 축소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하면, 2036년까지 총 28기의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며, 해당 설비는 점진적으로 LNG 복합화력 발전소로 대체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동사가 보유한 석탄화력 발전정비 부문의 수주 물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매출 감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동사가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4기의 석탄화력 발전소는 2030년대 초반 이후에 LNG로 전환될 예정 되어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제11차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 발전소 4개 중 가장 빠르게 LNG로 전환될 예정인 발전소는 태안 56호기로 2032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영흥 1,2호기가 2034년에 LNG 발전소로 전환된다.

석탄화력의 점진적인 퇴출과 함께, 복합화력 발전소의 설비 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비 수요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동사는 화력발전 정비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기반으로, LNG 복합화력 발전 정비 분야로의 기술 내재화와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312	374	407	440	448
증가율(%)	18.6	19.6	8.9	8.1	1.9
매출원가	233	280	305	335	338
매출원가율(%)	74.7	74.9	74.9	76.1	75.4
매출총이익	79	94	101	104	110
매출이익률(%)	25.3	25.2	24.9	23.7	24.6
판매관리비	30	37	42	51	48
판관비율(%)	9.6	9.9	10.3	11.6	10.7
EBITDA	65	72	72	64	72
EBITDA 이익률(%)	20.9	19.4	17.8	14.6	16.0
증가율(%)	150.8	10.9	-0.2	-11.2	11.7
영업이익	50	57	59	53	62
영업이익률(%)	15.8	15.2	14.5	12.1	13.8
증가율(%)	406.1	14.6	3.9	-9.7	16.6
영업외손익	-1	-1	-0	9	11
금융수익	1	1	3	9	13
금융비용	1	2	4	1	3
기타영업외손익	-0	0	0	1	1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48	56	58	62	73
증가율(%)	흑전	15.2	4.8	6.8	17.3
법인세비용	4	8	6	8	9
계속사업이익	45	48	53	54	64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45	48	53	54	64
당기순이익률(%)	14.3	12.7	12.9	12.3	14.4
증가율(%)	흑전	6.5	10.6	2.7	18.9
자배주주지분 순이익	45	48	53	54	64

재무상태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유동자산	95	138	229	358	407
현금성자산	39	63	37	28	71
단기투자자산	0	0	120	275	280
매출채권	52	20	7	3	3
재고자산	0	2	1	1	1
기타유동자산	4	53	64	51	52
비유동자산	157	167	166	160	157
유형자산	12	26	27	17	18
무형자산	135	127	124	120	116
투자자산	10	13	15	22	23
기타비유동자산	0	1	0	1	0
자산총계	252	305	395	517	564
유동부채	21	50	43	38	39
단기차입금	0	0	0	0	0
매입채무	0	0	0	0	0
기타유동부채	21	50	43	38	39
비유동부채	28	15	16	5	5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25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3	15	16	5	5
부채총계	49	65	58	43	44
지배주주지분	203	239	336	474	520
자본금	29	29	36	46	46
자본잉여금	121	121	175	272	272
자본조정 등	0	0	0	1	1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0	0	0	0
이익잉여금	53	89	125	155	201
자본총계	203	239	336	474	520

현금흐름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3	62	76	80	74
당기순이익	45	48	53	54	64
유형자산 상각비	8	8	9	7	6
무형자산 상각비	8	8	5	4	4
외환손익	0	0	0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20	-8	14	11	-0
기타	2	6	-5	4	0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5	-8	-129	-168	-12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0	0	-0	3	-0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4	-5	-6	-4	-7
기타	-1	-3	-123	-167	-5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4	-30	26	80	-19
차입금의 증가(감소)	-20	-15	-10	0	0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0	0	20	107	0
배당금	0	-11	-17	-24	-19
기타	-4	-4	33	-3	0
기타현금흐름	0	0	0	0	-0
현금의증가(감소)	14	24	-26	-8	43
기초현금	25	39	63	37	28
기말현금	39	63	37	28	71

주요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F
P/E(배)	0.0	0.0	0.0	23.9	24.9
P/B(배)	0.0	0.0	0.0	2.8	3.1
P/S(배)	0.0	0.0	0.0	2.9	3.6
EV/EBITDA(배)	N/A	N/A	N/A	15.7	17.5
배당수익률(%)	N/A	N/A	N/A	1.4	1.2
EPS(원)	784	835	794	590	694
BPS(원)	3,558	4,198	4,701	5,115	5,609
SPS(원)	5,480	6,555	6,131	4,795	4,832
DPS(원)	195	304	330	200	200
수익성(%)					
ROE	24.8	21.5	18.3	13.4	12.9
ROA	18.7	17.1	15.1	11.9	11.9
ROIC	27.4	25.4	28.8	27.4	34.9
안정성(%)					
유동비율	449.4	273.3	537.3	941.0	1,049.9
부채비율	24.1	27.3	17.4	9.1	8.5
순차입금비율	-4.7	-14.9	-41.7	-62.8	-66.5
이자보상배율	39.1	28.6	16.0	55.9	127.7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1.3	1.3	1.2	1.0	0.8
매출채권회전율	7.3	10.4	30.3	89.1	172.0
재고자산회전율	N/A	388.0	303.0	578.0	582.4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우진엔텍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5.05.13	우진엔텍 – 빌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 전문기업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신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시가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형 기업에 대한 무상 보고서로, 투자자들에게 국내 중소형 상장사에 대한 양질의 투자 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저작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